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 추진계획 마련

전북자치도·시군 공무원 대상 추진계획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생산의 규모화·조직화와 농생명산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전북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 등의 핵심 특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되는 전북자치도만의 특화 지구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의 권한이양으로 농업 생산에 머물렀던 지역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R&D)과 기업 집적화가 가능해 질 것이며, 국가의 재정 지원도 받게 명시되어 있어 푸드테크, 디지털육종, 약용작물 육성,

반려동물 산업과 같이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전문가 및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5년 단위 분야별 지구 실행계획을 수립해 도에 6월말까지 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도에서는 농생명산업 지구를 올해 12월까지 지정할 계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 실행계획에 대해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추진계

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지역 농생명자원의 개발 조사를 위해 시군의 수요를 파악했다.

11월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성장 태스크포스트(7개 분과, 56명)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12월에는 7개 분과 태스크포스트에서 논의한 사항을 공유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도출과 지구 추진계획(안) 마련을 위해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지난달 29일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생명산업 지구 추진계획 설명회는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과 도 사업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추진 목적, 기본방향, 참여기관 역할, 추진 절차 등의 추진계획 설명과 시군에서 직접 수립해야 하는 실행계획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각 시군마다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구 지정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거점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부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 안내

농어촌공, 설명회 개최... 현장 직원 전문성 강화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부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신규 정책 사업에 대한 공사 현장 직원의 전문성, 고객 응대 역량 높이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 이양(매도·매도조건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미래 농업 조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정책직불과와 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담당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하여 24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사업과 관련된 세법 교육, 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별 토의가 이어졌다.

정인호 농지관리과장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고령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김중훈 경제부지사, 소상공인연합회 민생현장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오후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들과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불확실한 경기 상회속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영 위기 속 소상공인 맞춤형 연계 지원으로 이차보전 연계 특례보증과 온라인 판로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안전망 강화 지원책을 설명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중훈 부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속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내실있는 정책자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바이오진흥원, 베트남서 전북 K푸드 호평... 수출박차

베트남 하노이 대형마트에서 유망제품 홍보 프로모션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K-푸드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 최대 한국식품 소비자인 베트남 현지에서 해외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해 도내 수출 유망 농식품기업의 시장개척과 함께 54만 달러의 수출상담 및 10만 달러 MOU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모션 행사는 베트남을 교두보로 동남아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하노이 원마트에서 도내 식품기업 10개사의 제품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현지 판촉행사와 더불어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행사장에서 시음, 시식 후 관심품목에 대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을 29일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출성사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식품에 대한 시각의 폭을 넓히고 전북 식품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형 쇼핑몰 내 매대를 설치하여 ETC 홍보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직접 현지소비자와 접촉해 시장테스트를 진행했다.

프로모션에 참여한 기업들 중 건강 기능식품, HMR 식품과 같은 시장성이 좋고 반응이 좋았던 제품에 대해 계약상담 54만 달러, 수출 10만 달러 계약을 타진하는 등 수입관련 협의가 이뤄져 향후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현지 바이어 연계로 베트남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프로모션 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진단을 확인해 도내 기업의 전략적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고 제품 및 브랜드를 홍보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베트남 현지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해 54만 달러의 수출상담 및 10만 달러 MOU 계약을 체결했다.

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호평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일회성 프로모션에 그치지 않고 후속 수출성과가 가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내 유망품목에 관심을 갖는 현지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관리,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연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5년 연속 임대주택 임대료 등 동결

전북개발공사가 2024년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8개단지 1,828세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5년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개단지 4,650세대의 임대료 등 동결을 통해 약 140억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이번 동결료 약 9억원의 추가 경감이 예상된다.

임대주택은 매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으며, 갱신계약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5%이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그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변경할 때 전북특별자치도 주거비물가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반영하여 인상율을 결정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2020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해 왔다.

2024년 갱신계약 대상 8개 단지의 임대조건을 그간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상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높은 주거비 물가지수와 내수경기 악화,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



전북개발공사가 2024년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8개단지 1,828세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5년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민생예교로 2단지 전경.

고자 이번에도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다. /김욱기 기자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전북신보, 손해금 면제·분할상환기간 확대 등 재기지원 기회 부여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중관, 이하 전북신보)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8~15%의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

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또한 상환예정금액의 10%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도 가능하다.

전북신보 한중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복합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recredit.or.kr)와 재기지원센터(230-3333[내선2])에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